

2014 Summer Session -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참가후기

20100450 기계공학과 김정택

1. 개요

- a. 기간: 2014년 7월 7일 - 2014년 8월 15일
(미국 체류기간: 2014년 6월 27일 - 2014년 8월 26일)
- b. 수강 과목: Literature of American Culture
- c. Berkeley 숙소: Sublet
- d. 총 경비: 약 1200 만 원
- e. 여행 장소: Los Angeles, San Francisco Bay Area, Seattle, Las Vegas

2. 출국 전

a. 수강 신청

수강 신청은 학기 중에 진행했습니다. 수강 신청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고,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문학 과목을 신청했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그냥 신청했습니다. 실제로 들어본 결과, 정말 어려웠습니다. 등록금을 결제할 때는 해외 결제 가능 카드가 필요한데, 요즘엔 일반적으로 쓰이므로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b. 항공권 예약

Summer Session 이 결정되고 바로 바로 예약하여, 대한항공 직항으로 155 만 원 정도로 예약했습니다. 60 일 전에 예약하면 대한항공에서도 저렴한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항과 경유의 가격차이가 20 만 원 정도여서 직항으로 예약했습니다.

c. Berkeley 숙소 결정

버클리 기숙사는 밀플랜을 포함하여 250 만 원 정도였는데, 부담이 되어 sublet 을 했습니다. 우리학교 친구와 둘이 살았으며, 버클리에 등록되고 @berkeley.edu 계정이 발급되면 페이스북 버클리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 있는 하우스 소그룹에 가입하면 어렵지 않게 sublet 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6 주에 1000 달러 였습니다.

d. 여행 계획

여행 계획은 특별히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행을 다녀본 경험이 많아서 적당히 돌아다녔습니다.

3. 수강 기간

a. 과목

수강한 과목은 Literature of American Culture 로 소주제는 미국의 다양성과 인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세 번씩 1 시간 15 분 수업이었습니다. 매시간마다 약 55 페이지의 읽을거리 분량이 나온다고 공지가 있었는데, 시험과 영화 시청 시간을 빼면 평균은 더 많았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부터 시작해서 인종에 대한 다양한 글들을 읽었습니다. 읽을거리는 짧은 분량(약 10~20 페이지)의 에세이나 소설을 제본한 교재와 3 권의 중장편 소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시간마다 3~4 개의 글을 읽거나 중장편소설 1 권을 읽고, 읽은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을 토론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영화 두 편에 대한 설명과 토론도 진행했습니다. 매번 글을 읽어가는데도 벅차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수업은 꽤 재미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종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데, 이에 대해 공부하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과제는 에세이 두 편이 있었고, 중간, 기말이 있었습니다. 중간, 기말도 읽은 글의 제목과 저자를 쓰는 문제도 있었지만, 주로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과제의 경우 피드백을 해주고 리비전을 낼 수 있어서 첨삭된 내용에 대해 수정하여 다시 제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운 과목인 것은 맞지만, 문학에 대해 관심이 많고 미국 사회의 문화에 대해 배워보고 싶다면 한 번쯤 들어보면 좋은 과목입니다. 좋은 학점을 받지 않았지만 나름 열심히 수강했기 때문에 남는 것도 많았습니다.

b. 생활

Sublet 을 하였으므로 등학교에 20 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밀플랜이 없으므로 일반 외부식당과 학교식당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서 주로 외부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고, 숙소에서 간단한 요리를 해먹기도 했습니다. 대학가이므로 Downtown Berkeley 나 Telegraph Avenue 주변에 식당이 많았고 저렴한 식당도 많았습니다. 버클리 주변의 거의 모든 식당을 가본 것 같습니다. 기숙사에 살지 않으면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c. 대중 교통

버클리 학생증을 받으면 AC Transit 을 무료로 탈 수 있는 스티커를 줍니다. AC Transit 을 이용하면 샌프란시스코 시내나 오클랜드 시내까지 무료로 갈 수 있으며, 버클리 주변도 무료로 갈 수 있습니다. Telegraph Avenue 에서 Downtown Berkeley 까지도 거리가 꽤 되는데 매번 무료로 움직였습니다. Bart 라는 지하철도 있는데 주로 Rockridge 역을 이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나갈 때는 Bart 가 시간이 적게 걸려서 유용한 면도 있었지만, 돈을 절약하고 싶어서 AC Transit 을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Bay Area 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가 있으므로 그것을 구매해서 필요할 때 쓰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d. 기타

요즘은 선불형 요금제와 선불형 유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편의점이나 주변 통신사 대리점을 가면 쉽게 유심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심만 교체하면 미국 전화를 이용할 수 있고,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AT&T 선불 서비스인 GoPhone 의 60 달러 요금제를 이용했습니다. 미국내 통화의 경우 200 분, 문자메시지 무제한, 3G 2 기가 정도가 포함된 요금제였습니다.

미국의 IT 서비스들에 관심이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차단되어 있는 Netflix 나 Pandora Radio, iTunes 등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사용해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도 몇 번 이용했습니다.

4. 여행

여행 지역은 Los Angeles, San Francisco Bay Area, Seattle, Las Vegas 였습니다. 처음 Los Angeles 로 출국하여 일주일 정도 여행했습니다. 이때 한국으로 들어올 급한 일이 있어서 귀국했고, 5 일 정도 체류하다가 개강 일정에 맞춰서 다시 출국했습니다. San Francisco Bay Area 는 수강 기간 동안 여행했습니다. 가볼 곳이 많지는 않지만 Stanford University 가 있는 Palo Alto 를 포함해서 매주 주말에 돌아다니면 웬만한 곳은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도 150 달러 정도하는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갔습니다. Seattle 과 Las Vegas 에도 각각 일주일 정도 체류했습니다.

5. 입국 후

a. 성적표 수령

성적표는 특별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처음부터 우리학교 국제협력팀 주소로 등록하면 편합니다.

6. 경비

a. 한국 - 미국 항공권

개인적인 사정으로 여행 도중에 한국에 한 번 들어왔습니다. 모두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했습니다. 인천-Los Angeles 는 155 만 원, San Francisco-인천은 180 만 원 정도였습니다.

b. 수업료

수업료는 학점당 400 달러 정도였고,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여 2000 달러 정도를 지불했습니다.

c. Sublet 비용

Sublet 비용이 2000 달러여서 1 인당 1000 달러씩 지불했습니다.

d. 미국내 항공권 및 도시간 이동 대중교통 경비

Greyhound 는 Los Angeles-San Francisco 와 Las Vegas-Los Angeles 구간을 이용했습니다. 예약시기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큰데, 한 달

전에 예약하면 10 달러 미만으로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Las Vegas-Los Angeles). Los Angeles-San Francisco 는 40 달러 정도였습니다.

미국내 항공권도 예약시기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큽니다. Oakland-Seattle 과 Seattle-Las Vegas 구간을 이용했는데, 넉넉한 시간을 두고 예약하면 두 구간 모두 150 달러 내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는 연착이나 취소가 많으므로 여유를 두거나 뽀뽀하게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Seattle-Las Vegas 의 경우,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10 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했습니다. SeaTac 국제공항 시설이 좋고 급박한 일정도 없어서 편하게 대기했지만, 상황에 따라 심각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e. 수강 기간 생활비

6 주 동안 생활비는 약 200 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절약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지는 않아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f. 여행 경비

항공권이나 Greyhound 비용을 제외하고 200 만 원 정도 썼습니다. Seattle 에서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했으며, Los Angeles 와 Las Vegas 에서는 저렴한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g. 기타

기타 비용으로 휴대폰 요금과 지인들 선물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휴대폰 요금은 한 달에 60 달러로 120 달러였습니다. 이래저래 100 만 원은 쓴 것 같습니다.